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는 뭉쳐놓고 뭉쳐놓고 그렇게 해 나가야

☞ 17면에서 계속

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일체 만법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자기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받아 가지고 세상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이치를 꿰뚫어서 알기 위해서는 또 놓고 뭉쳐 놓고 뭉쳐 놓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나라는 존재를 세우고 그렇게 보임(保任)을 하지 않으면 역시 또 미(迷)해지니까요. 세상의 도리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세상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로부터 생겼다는 그 점을 상세히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가다가 정히 그것이 사사로이 쓰이는 게 아니고 남이 불쌍해서 쓰인다거나 또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쓰인다거나 이런다면 가차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이사를 가는데 비가 오면 그게 다 그냥 젖는 겁니다. 이게 잘사는 집이 이사를 가는 것 같으면 괜찮아. 못사는 사람이 이삿짐을 그 차에다 실어 가지곤 거기에 사람도 타고 이래야 할 텐데 비가 오면 엉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하는데 이사 갈 동안만이라도 비가 안 오게 좀 해 주세요." 그러길래 "날더러 '해 주세요'가 아니다. 네가 해라. '나 갈 동안까지 비가 안 오게 해야지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테레비에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했다는데 이사할 동안은 비가 안 와서 잘 갖다 놓고 나니, 그날 저녁에 비가 오더랍니다. 하하하. 이렇게 사람이 비를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비가 사람을 피해 주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걸로 한 가지를 체험한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질문할 사람 또 없습니까?

질문자5(男) 이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공부삼아서 이사에 관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분처럼 가난한 이사인데 그 세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이사 가는 것을 빨리 들어가기는 해야겠는데, 제 마음에 어떤 결정이 안 나고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뜻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스님이 지도하신 대로 주인공에다 이제 턱 맡겨 놓았는데, 저한테 이사를 권했던 분들이 "이사를 언제 가려느냐? 갈래, 안 갈래?"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 제가 잘 몰라요. 맡기고만 있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노릇인가.' 저 스스로도 주인공한테 맡겼는데 이거 잘못 맡겨졌는가. 그 여러 가지로 좀….

큰스님 맡기는 도리도 이렇습니다. 맡기기만 해서도 이게 딱, 침을 딱, 정면에 찌르는 소리가 못 됩니다. 정히 급하면 '당신만이, 당신만이 가게 할 수 있다.' 또는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을 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 마음이 정돈되어서 정할 수 있도록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라고 맡기세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그대로 눌러앉는 게 좋겠느냐, 가는 게 좋겠느냐?' 하고 잘 생각해 봐서 눌러앉고 싶으면 그냥 눌러앉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는 거보다도 댁에서는 눌러앉는 게 더 좋을 거 같지 않아요? 하하하. 아는 사람이 더러 이렇게 서로 마음도 알아주고 돌보아 주니깐 말입니다.

질문자6(男) 스님, 저는 이제 스님을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 7월에 우연히 『도(道)』라는 책을 보고 그다음에 『무(無)』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뵙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묻는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주인공에게 모든 걸 맡겨라." 그러셨는데 지금 개구리 찾아 나선 아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엄마 곁에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마들이 주인공을 몰라서 그런 건지 또는 아이들이 주인공을 몰라 그런 건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주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무슨 애들이?

질문자6(男) 대구에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집을 나가 가지고 지금 아마 100일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 중에는 혹시 스님을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납치를 당해 가지고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전부 믿는다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지금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인연 따라서 온 업보라고 볼 수 있겠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붙들어서 방에다 앉혀 놓았는데 목말라서 죽겠다고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다 주니까 코를 박고 죽었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거, 또 영계성이니 유전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공부! 물론 세상이 바뀌어지고 온통 땅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 애들은 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두가 잘 있다기만 하면 되느냐 이러겠지만, 하여튼 잘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죠.

질문자7(女) 전번에 스님께서 KBS에 오셨을 때 먼빛으로 뵈었는데 가깝게 이렇게 뵈오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큰스님 예.

>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 자기로부터 생겼다는 그 점을 상세히 아실 것 같으면
>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질문자7(女) 다름이 아니옵고 어느 자식이든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지금 한 10개월째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고 그런데, 제가 금방 머리에 스쳐 가는 생각이, 제가 한 20년 전에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제가 불에 태운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머리에 싹 스쳐 가면서 가슴이 막 떨리고 이렇거든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스님 뭘 태웠다고요?

질문자7(女) 저, 바퀴벌레요. 그런 걸 제가 태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머리에 스쳐 가는….

큰스님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죠. 허허허. 그게 인간의 양심인데, 바퀴벌레 몸은 비록 없어졌으나 그 바퀴벌레가 타 죽을 때 그 애틋한 쓰라림 그런 것도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질문자8(女) 스님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저의 남편이 어쩌다가 그런 직업을 붙들었어요.

큰스님 무슨 직업요?

질문자8(女) 돼지 새끼를 잡아서 식당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런 직업이거든요. 이제껏 그런 일을 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죄를 받아서 그랬는지 항상 마음에 그렇게 걸려요. 저는 통 건강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째 갑자기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큰스님 그럴 거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돼지 새끼가, 모습을 돼지로다가 태어났으니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시키면 외려 잡은 것이 더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생각 차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깐 주인공에다 맡기시면서 모든 게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인도환생을 할 수 있게끔, 당신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병에도 영향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질문자8(女) 장어 같은 거 먹어도 괜찮습니까?

큰스님 장어 같은 거 잡으랬습니까, 어디? 하하하.

질문자8(女) 장어 같은 거 그런 거 고아서….

큰스님 예, 고아서 그 물을 먹어도 좋은데 절대로 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 거를 토막 칠 때에 토막 쳤던 그 자리를 먹으면 누구든지 병이 들어요. 그건 전부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절대로 산 거를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분열이 된 사람들을 보면 산 짐승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손들을 갖다가 둘씩 셋씩 정신병자로 만들고 또는 불구자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현실에 알고 그렇게 했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지었다면 모르고 받게 마련입니다.

질문자8(女) 그러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큰스님 직업에 귀천이 어딨습니까? 돼지를 갖다가 사람으로 만든다면은 좋죠. 그런데 돼지를 백 마리를 죽였다고 해도 한 사람만 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하하. 그런 법이 부처님의 묘법이죠. 영은, 이 영혼이라는 건 그냥 백, 이백, 천 개를 갖다가 한데 모아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가 불가사의한 문제들이지만 그거는 무심(無心)의 도리, 도법이기 때문에 중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죽일 때마다 모든 거는 주인공에 맡기시고, 잘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천도를 시켜 달라는 둥 환생을 시켜 달라는 둥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당신만이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다.' 하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관하세요.

내가 애들더러는 그럽니다. "친구야! 이 친구만이, 네 친구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한마음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주인공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만날 이렇게 사람 봐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하는 거 일러 준 대로 하세요.

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그럼, 그만하면 한 얘기만 하고 그만두죠.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한 큰스님께서 아마 3월 달이 생신인데 어느 날인지, 그것도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여 앉아 있는 데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첫째, 대장부가 방귀 씨 눈을 왜 틔우지 못하는가? 둘째, 대장부가 귀신 방귀털을 더하고 덜함도 없이 먹여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가? 세 번째, 대장부가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왜 끊어 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 사람도 대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산천은 두루 푸르른데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한 손 들어 하늘을 꿰어 돌고
한 발 들어 땅을 디디니
일곱 발짝 떼어 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더랍니다. 허허허. '그럼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는 물러서지 않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밤중에 두려움이 없는 것도 내 마음을 발견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두려움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담하게 나설 수도 있는 건데…, 하하하.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모두 웃고만 계시니깐 모두 도인들만 계신 모양이야. 하하하. 그럼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1년 10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